"연필 한 자루면 누구나 예술가로 변신"

▪ 오륙도예술문화연구회 '누드 크로키' 강좌를 가다

누드 크로키 실기가 끝난 뒤 황재종 화가가 수강생들의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황 화가가 실시 시간 수강생들과 함께 그린 누드 크로키. 캔버스 한 장에 12가지 포즈를 모두 담았다.

"누드 크로키의 가장 큰 매력은 연필 한 자루만 쥐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누드 크로키 불모지 부산에 묘목 한 그루 심는 심정으로 강의할 생각입니다."

황재종 화가는 "사물의 윤곽을 제한시간 내에 빠르게 담아내는 크로키는 미술의 기본"이라며 "인체의 비율을 통해 예술적 안목을 키우는 누드 크로키는 미술입문자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예술을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부경대학교 맞은편 오륙도신문문화센터에서 첫 누드크로키 강좌가 열렸다. 조선소 엔지니어부터 불임클리닉 근무자, 고등학생 자녀를 중년 여성까지 연령도 직업도 다양한 이들이 20대 중반 누드모델 주위로 둘러앉았다. 현직 카툰작가 한 명을 빼고 학창시절 이후 미술연필을 처음 들어본 초심자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황 화가는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보라"고 했다.

휴식시간을 포함해 두 시간 진행된 강의에서 모델은 길면 10분, 짧게는 5분 단위로 포즈를 바꿨다. 이날 모델은 모두 12개의 포즈를 잡았고 '초보 작가'들도 덩달아 12개의 작품을 쏟아내야 했다. 피사체를 파악하고 구도 잡고 삐뚤삐뚤 선을 몇 번 긋다보면 시간이 훌쩍 가버렸다. 수능시험 보는 수험생처럼 시간에 쫓겼고 작업 도중에는 묘한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리 없었다. 당황한 수강생이 "이론수업은 하지 않느냐"고 묻자 황 화가는 빙긋이 웃으며 "자신 안의 천재성을 깨워보시라"는 선문답 같은 답을 했다.

세상이 많이 개방되긴 했어도 누드는 여전히 금기와 호기심의 대상이다. 생명부지 이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신 앞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지만 속도가 생명인 '누드 크로키'에서 만큼은 '엉뚱한 생각'이 낄 틈이 없었다. 시간에 쫓겨 모델은 그저 따라 그려야할 '석고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강의가 끝난 뒤 어느 수강생은 "너무 바빠 관음적인 마음이 전혀 안 들어 수도승이 된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두 시간의 실기수업이 끝나고 이어서 수강생들의 작품 품평회가 열렸다. 예상대로 엉성하고 볼품이 없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뒤에 그린 그림은 갈수록 화풍이 잡혀가고 안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강생들은 자신들이 그려놓고도 의아해했다.

황 화가는 이를 두고 관념(이론)이 아닌 실제(실기)를 통해 방법을 찾는 "실사구시"라고 말했다. 보통은 기초와 이론을 익힌 뒤야 실기로 들어가는 데 황 화가는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패턴화된 이론수업은 예술적 창의와 다양성이 상실돼 종국에는 예술을 재미없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수롭지 않게 슥슥 그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정밀한 작업도 가능해집니다. 이론을 익히지 않아도 저절로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됩니다. 16년 강의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경북 울진이 고향인 그는 계명대 미대를 졸업한 뒤 30년간 인물화에 천착했다. 인체를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세대 해부학교실에 참여할 만큼 국내 누드크로키 분야에서 일인자로 꼽힌다. 현재 서울에서 누드크로키 전문 교실인 인물화아카데미그림패를 운영하고 있다.

황 화가는 누드크로키를 일부에선 습작 정도로 여기는 풍토가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편견이라고 꼬집었다. 집중적으로 1년 정도 빠져 들면 초심자도 개인 팜플렛을 만들 만큼 실력이 배양된다고 덧붙였다. 오륙도예술문화연구회가 주최하는 누드크로키 강좌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3개월 과정이다. 한 달 수강료는 10만원이지만 강사와 모델이 당일 서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결코 비싼 편은 아니다.

수강문의 ☎622-4075, 010-3882-6716

시간에 쫓겨 '엉뚱한 생각' 할 틈 없어
이론수업은 예술적 창의 죽이는 지름길
1년이면 초심자도 개인전 열 만큼 성장
불모지 부산에 묘목 심는 마음으로 강의

뼈 건강과 관련된 베이비붐 세대의 오해와 진실

푹 끓인 사골국 뼈 건강엔 '아웃'

정년을 맞았거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에게 가장 큰 화두는 노후의 건강한 은퇴생활이다. 보통 암이나 당뇨병이 노후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지만, 골격계 질환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험 요소이다.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섭취와 관련해 우리 한국인이 가진 몇 가지 잘못된 오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골을 오래 푹 우려낸 사골국을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 좋을 것이라 여긴다. 사골은 오래 끓일수록 칼슘 외에 '인'이 다량 발생하는데, 혈액 속에서 칼슘과 인은 효과를 서로 감퇴시키는 길항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중의 인 농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사골국에는 지방 함량이 많아 뼈가 부러진 후 회복을 위해서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사골국을 맹신하고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육류 섭취 증가로 한국인의 성인병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0년대 들어 단백질(육류)의 과잉섭취가 칼슘 흡수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건강상식처럼 알려진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육류 단백질을 과잉섭취하는 서양인의 경우에 한해 혈액과 소변이 산성화되고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뼛속 칼슘이 빠져 나오게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어려서부터 채식에 익숙하고 육식을 기피해 온 베이비붐 세대 이상의 60대나 농어촌 주민에게는 오히려 적절한 육류 섭취가 필수적이다. 참고로 55세 이상 한국인의 일일 단백질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55~60g, 여성은 45~50g이다(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년).

그렇다면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우유, 치즈, 요구르트, 계란, 양배추, 뼈째 먹는 생선 등 고칼슘음식을 섭취한다. 그리고 햇볕을 쬐면서 적당한 운동을 자주하며, 근육 강화 운동에도 신경을 쓴다.

커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과음은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도한 음주와 카페인 섭취를 피한다. 신장을 통해 칼슘을 배출시켜버리는 짠 음식도 가급적 멀리한다.

약물 섭취도 주의해야 한다. 관절염과 관련된 약물에는 오히려 뼈를 약하게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변비약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변비약 의존도를 낮추는게 좋다.

앞서 언급한 뼈 건강과 관련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적어도 뼈 건강에 있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규
동서대학교 에너지
생명학부 교수
용호동 거주

여러분도
저처럼 체력왕
도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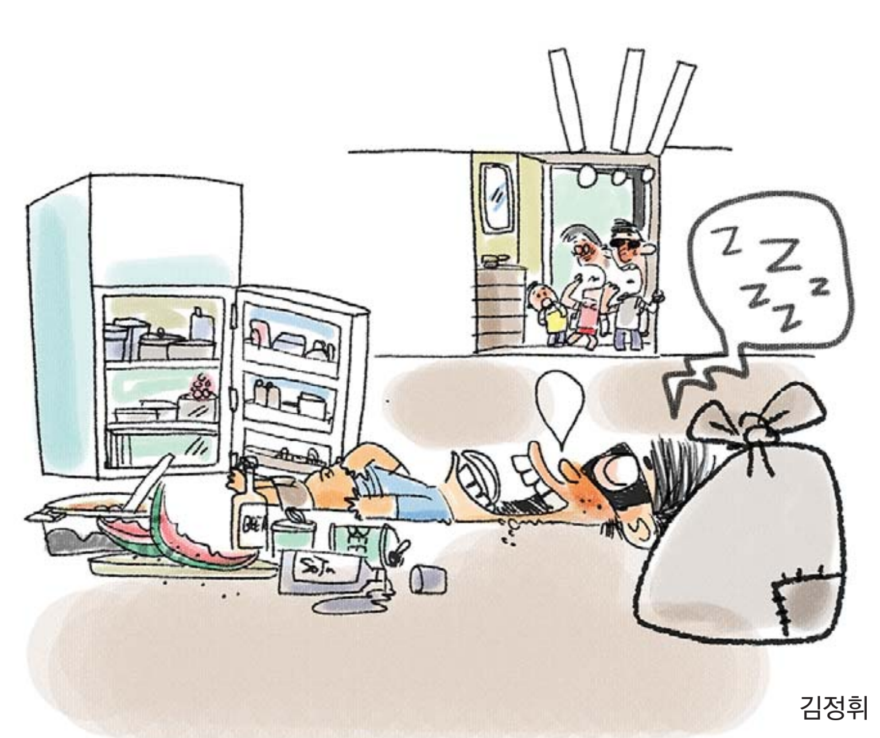
2012~2014년 3년 연속 남구 체력왕에 뽑힌 대연4동 이수완 동장.

9월3일까지 2016년 선발대회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2016년 남구 체력왕을 뽑는다. 남구체력인증센터(백운포 국민체육센터 별관 1층)에서 7월11일~9월3일까지 체력왕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남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자 전원에게 스포츠타월 등 상품도 지급한다.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부문 남녀 성적 최우수자 6명에게는 1인당 20만원 상당의 상품과 함께 오는 9월2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국민체력100 체력축제 출전권한(식비, 교통비 전액 지원)도 주어진다. 전화(☎626-8215~6) 또는 인터넷(www.nfa.sports.re.kr) 참가 신청. 체력측정·인증은 09시~18시(월~토)이며 사전 예약.

오륙도카툰 주객전도 … 피서철, 도둑 조심!



대동골문화센터 첫 연극 '마더' 공연

8월17~25일… 남구의회 김성경 의원 주연 출연 눈길

지난해 10월 개관한 대동골문화센터에서 첫 유료 연극 '마더'가 공연된다.

프랑스 작가 드니즈 살렘의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를 원작으로 한 마더는 전형적인 유태계 집안에서 자란 여인이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독립으로 받은 상처와 외로움으로 딸에게 집착하면서 발생하는 모녀의 갈등과 사랑을 가슴 절절하게 담아낸다. 이번 연극 공연은 시나위공연기획단이 기획한 2인극 열전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번 연극은 남구의회 김성경 의원이 딸로 출연해 눈길을 끈다. 배우이자 연극연출가인 김 의원은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소속으로 2005년 부산연극제 우수여자연기상을 받기도 했다. 엄마 역에는 부산의 중견 연극인 김혜정씨가 연기한다. 공연은 8월17일~25일 대동골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오후 6시 일요일 오후 4시.

"행복을 팔아요" 우암골의 나눔장터

제1회 우암동 '행복마을 에코데이 장터' 열려
주민 200여명 참여 활기… 홀수달 셋째주 개최

지난 20일 오전 11시 우암동 양달마을 행복센터 앞 쌈지공원에서 남구 행복마을(우암동 양달마을, 감만2동 참살이 마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과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우암골 공동체와 참살이 행복마을 운영위원회, 우암동 주민센터, 남구 평생교육과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우암동 '행복마을 에코데이 장터'에 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오후 3시까지 행복 마켓, 행복마을 나눔장터가 펼쳐졌고 남구 평생학습빌리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남구 동아리 연합회의 공연과 작품전시 및 판매도 이뤄졌다.

에코데이라는 취지에 맞게 모두가 친환경적이다. 양달행복마을에서 국수를 참살이 행복마을에서는 블루베리 묘목과 떡, 친환경 향기수세미를 판매했다. 산야초와 함께 하는 힐링라이프 수강생들이 부추전과 발효곡주를 선보였고 양지골 디딤카페에서 냉커피를 준비했다. 행사 내내 고소한 기름 냄새와 그윽한 커피향이 후각을 자극하며 참가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주부의 자격, 손뜨개 사랑 등 10여 개 동아리에서 친환경 섬유탈취제 가방 소품 퀼트제품 캘리 공예품 등 정성들여 만든 물건들을 전시 판매했으며 현수막 파우치, 나무 재활용 공예 등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양달마을 행복센터 평생학습빌리지 사업의 7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작품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북아트로 꾸민 어르신 한글교실 편지 작품, 산야초와 함께 하는 힐링 라이프에서 천연 미백 여드름용 가루비누, 천연 치약, 관절타파 연고를 전시 판매했다. 소품 창업반에서는 자수를 접목한 양재 소품을 선보였는데 특히 앞치마와 다포가 시선을 모았다. 웹툰으로 만나는 '양달마을 사람들의 공간과 삶'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작품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전시했고 실내 가드닝으로 행복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폐품을 이용한 작품들을 선보여 시선 집중은 물론 행사장의 분위기까지 행복하게 만들었다.

평생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동아리들이 연합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나눔과 실천을 함께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행복마을 에코데이는 홀수달 셋째주에 열린다. 다음 행사는 9월28일(수)에 있을 예정이다.

한정미 명예기자

안내·알림

초등학생 큐레이터 교실 운영

부산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8월 2~11일 박물관 교육실과 전시실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박물관교실 '나는 박물관 큐레이터'를 무료로 운영한다. 신청은 초등 1~2학년은 26일 오전 9시부터, 3~6학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박물관 홈페이지(museum.busan.go.kr>교육행사>교육신청/확인)에서 하면 된다. ☎610-7141

용문탁구교실 수요일 무료 개방

용호1동의 용문탁구교실(대표 한상호)이 남구 주민의 체력증진과 생활 탁구 활성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탁구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알려 왔다. 수요일 오후 6~10시까지 남구에 거주하는 성인이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무료 레슨(오후 8시 이후)도 실시한다. 탁구장은 용문중학교 정문 앞 남도목욕탕 3층에 위치해 있다. ☎621-0962, 010-9615-3313

노인 교구 활용 교육실시

그랜드자연요양병원과 사단법인노인생활과학연구소는 입원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용 교구 활용프로그램을 이달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은 노인생활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다양한 노인교구를 노인용 교구 활용지도사를 통해 입원 어르신들께 적용해 인지개선, 공간지각, 소통도구로 활용한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준공되고 남구에 금융 공기업들이 들어온 지 두 해가 흘렀다. 덕택에 남구 상권과 부동산은 활기를 띠었고 관할 세무서는 전국 세무서 중 세수 1위의 영예도 안았다.

이런 산업·경제의 본질적 성과 외에 BIFC는 남구 주민에게 '뜻밖의 선물'도 안겨주었다. 63층 전망대를 무료 개방하고 입주기관의 전시관들을 금융교육으로 활용하는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또 카페, 음식점이 밀집한 BIFC몰과 야외 미술품들은 휴식과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BIFC는 보고, 공부하고, 먹고, 즐기는 남구 주민의 신나는 '금융놀이터'가 됐다.

글·사진=서다솜 기자(문화체육과 주무관)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부산국제금융센터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BIFC몰

Discovery

Namgu

남구의 재발견 BIFC 4색 즐거움

아침은
BIFC 스타일로
아메리카노+샌드위치
3,500원

63층 전망대에서 바라본 남구 야경.

289m에서 감상하는 '100만불 야경'

View BIFC 63층 전망대

오사카 여행의 최고 인기 관광상품 중 하나가 고층빌딩에 올라 도심을 내려다보는 '야경투어'다. 특히 공중정원전망대가 설치된 우메다빌딩(높이 173m)은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전세계 관광객들로 긴 줄을 서야 한다.

그런데 BIFC는 이보다 더 스펙터클한 야경투어가 가능하다. 전망대인 63층 높이는 무려 289m. 우메다빌딩보다 100m 이상 높은데도 공짜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지상에서 63층까지 1분 만에 닿으니 줄을 설 필요도 없다. BIFC 건물관리 회사인 부산파이낸스센터AMC가 63층 전망대를 연말까지 무료 개방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중순부터는 개방 시간을 오후 2시~9시로 조정해 '야경관광'이 가능해졌다.

전망대는 매주 토요일 개방하고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건물 내 무료주차 가능. ☎955-5114

보고 먹고 배우고 감상하고 BIFC는 '금융놀이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어려운 금융도 온 몸으로 이해하니 쉬워요

Study 금융박물관로드

명칭부터 범상찮은 '부산금융박물관로드'는 문현금융단지 내 금융 관련 박물관 4곳을 돌아보고 금융지식과 자본시장의 역사를 체험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민에게 금융을 재미있게 알려주자는 취지로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됐다. 인기가 높아 올 한해 예약이 일찌감치 완료됐다. 딱딱하고 어려운 금융을 어떻게 쉽게 풀어놓았을까. 지난 9일 부산금융박물관로드를 직접 체험해봤다. 마침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진로체험부 학생 30여명이 동행했다.

BNK금융그룹 사옥 1층에 위치한 부산은행 금융역사관에서 로드의 대장정에 올랐다. 강의에 앞서 에코백과 동전지갑 같은 기념품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체험학습으로 떨떠름(?)해 하던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우리나라 은행의 역사가 담긴 영상을 관람한 후 학예사의 설명을 통해 시대별 금융 역사의 흐름을 살펴본 뒤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됐다. 천장 위 지구본에 기념 사진이 떠다니고 상평통보를 직접 들어보고 친구들과 금융퀴즈도 푼다. 용돈기입장도 만들어볼 수 있다.

이어서 BIFC 51층 한국거래소 홍보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층 전체를 전시관으로 꾸며놓았고 부산항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 또한 색다른 즐거움이다. 한국거래소의 모의 상장 체험이 가장 인기가 높다. 자회사를 증권 시장에 상장하고 직접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역시 돈은 버는 맛이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화폐전시관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사용된 600여 점의 화폐가 전시돼 있다. 화폐 역사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박물관이다. 지하에 현금 수장고가 있는 국가보안시설이라 입구 로비는 촬영이 금지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1만 원권 100만장부피의 '100억원 큐브'가 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신사임당을 대신해 5만원권 지폐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길은 기술보증기금 기술체험전시관으로 향했다.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댄스 로봇 그룹의 '강남스타일'을 감상하고 4D 영상관에서 나노세계 탐험과 자외선 비즈를 직접 만들어 자외선을 확인해보는 체험까지 즐기다보니 금융박물관 로드 체험이 마무리되었다.

기술보증기금 과학기술체험관.

문현금융단지 내 4개 금융전시관 투어
1년 예약 완료…컨텐츠 부족은 아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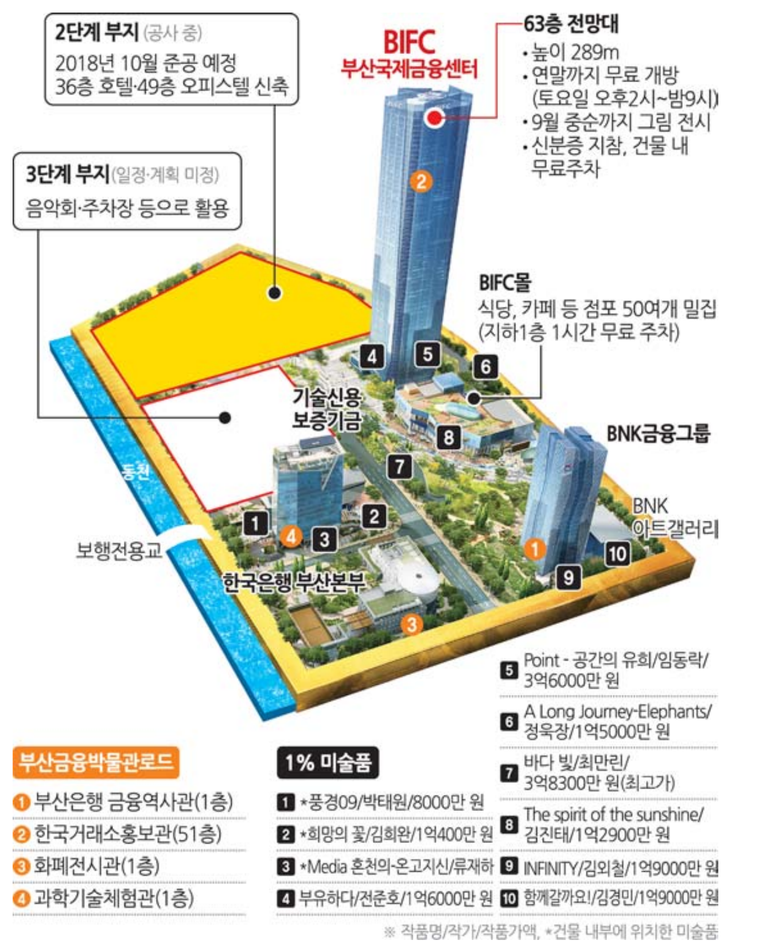
개인적 생각이지만 금융박물관로드는 소문만큼 그닥 흥미롭지는 않았다. 4개 전시관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는데 4시간 정도가 걸린다. 꽤 긴 시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은 지루해했고 분위기가 다소 산만해져 아쉬웠다. 프로그램의 눈높이를 낮추든지 전시 콘텐츠의 보강이 필요해 보였다. 그래도 미래의 금융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기억에 남을 추억임은 분명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이고 매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자유학기제 등으로 예약이 많이 밀려있고 지방에서도 전세버스를 빌려 탐방오기도 한다. 박물관로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평일 아무 때고 각 전시관들을 방문할 수 있다. http://bfmr.busan.com

☎661-4816

▪ 부산금융박물관로드
(http://bfmr.busan.com)

- **부산은행 금융역사관**
  부산·울산·경남지역 최초 금융역사관. 지역 금융의 역사와 경제 등 소개.
- **기술보증기금 과학기술체험관**
  로봇댄스, 나노4D 영상 관람 등 과학체험프로그램.
- **한국거래소 홍보관**
  BIFC 51층 위치. 자본시장 역사 관련 유물 530여점.
- **한국은행 화폐전시관**
  고대부터 현대까지 화폐 600여 점, 100억원 큐브 등.


2단계 부지 (공사 중)
2018년 10월 준공 예정
36층 호텔·49층 오피스텔 신축
3단계 부지 (일정·계획 미정)
음악회·주차장 등으로 활용
BIFC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 전망대
•높이 289m
•연말까지 무료 개방
(토요일 오후2시~밤9시)
•9월 중순까지 그림 전시
•신분증 지참, 건물 내 무료주차
BIFC몰
식당, 카페 등 점포 50여개 밀집
(지하1층 1시간 무료 주차)
기술신용보증기금
BNK금융그룹
BNK 아트갤러리
동천
보행전용교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금융박물관로드
❶ 부산은행 금융역사관(1층)
❷ 한국거래소홍보관(51층)
❸ 화폐전시관(1층)
❹ 과학기술체험관(1층)
1% 미술품
1 *풍경09/박태원/8000만 원
2 *희망의 꽃/김희완/1억400만 원
3 *Media 혼천의-온고지신/류재하
4 부유하다/전준호/1억6000만 원
5 Point-공간의 유희/임동락/3억6000만 원
6 A Long Journey-Elephants/정욱장/1억5000만 원
7 바다 빛/최만린/3억8300만 원(최고가)
8 The spirit of the sunshine/김진태/1억2900만 원
9 INFINITY/김외철/1억9000만 원
10 함께갈까요!/김경민/1억9000만 원
※ 작품명/작가/작품가액, *건물 내부에 위치한 미술품

'억' 소리 나는 조각품… 10점 합계 17억원

BIFC 야외조각품 'Long-journey'.

Art 야외조각품

문현금융단지에 '억 소리' 나는 보물들이 숨어있다. 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른바 '1% 예술품'이다. BIFC(4점), BIFC몰(1점), BNK사옥(2점), 기술신용보증기금(3점) 건물 안팎으로 모두 10점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이 '숨은 보물'인 이유는 10점 합계가 17억 원이 넘는데다 문현금융단지 근무자들도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심오한 예술품에 권장가격이 있을 리 없어도 사람인지라 비쌀수록 먼저 눈길이 간다.

최고가는 BIFC몰 입구에 놓인 '바다빛'. 3억8,300만원이다.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로 평가 받는 원로작가 최만린 선생의 작품이다. 5개 청동 조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외한 눈에는 부리를 치켜든 두루미떼가 연상된다. 다음 비싼 작품은 BIFC 2층 로비 천장에 매달린 'Point-공간의 유희'로 3억6,000만원이다. 어부가 고기를 낚기 위해 펼친 그물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돈을 많이 거둬라'라는 의미로 보인다.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에 LED조명이 반짝반짝 들어온다. 반면 가장 '저렴한' 작품은 기술보증기금 후문(동천 방향) 높이 3m의 '풍경09'로 8,000만원이다.

액수와 상관없이 가장 눈길을 잡는 예술품은 BIFC 1층 로비 벽면을 채운 청동 각품이다. 가로 4.2m, 높이 2.8m 액자틀 안에 경복궁 내 경회루를 새겨 넣었다. 옛 1만원권 지폐를 연상케 한다. 또 BIFC몰 2층 쌈지공원 산책로에 세워진 기린 다리를 한 코끼리 조각품도 흥미롭다. 울산대 미대 정욱장 교수의 전매 특허인 'long-journey'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BIFC몰의 '미스터스시' 점심특선(1만원). 남성정장 맞춤 전문점 '사로옴므'. '금수저'의 삼겹살 정식세트(8000원).

맛·분위기는 '강남스타일' … 가격대는 대학가 수준

음식점·카페 등 50여 업체 입점
커피 1500원 등 가격대 안 비싸
맛·서비스로 직장인·일반인 유혹

Food·Relax BIFC몰

"BIFC몰이 뭐지? 우리도 갈 수 있어?"

취재를 하면서 적잖게 들은 말이다. BIFC(부산국제금융센터)도 어려운 판에 '몰(Mal·쇼핑타운)'까지 붙였으니 멀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다.

BIFC몰(www.bifcmall.co.kr)은 BIFC 등 문현금융단지 내 5,000여 금융공기업 종사자들을 겨냥해 조성한 대형 상가건물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나' 갈 수 있다.

몰 내부는 쾌적하고 백화점처럼 고급스럽다. 무엇보다 시원하다. 고객 동선을 고려해 건물 중앙에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로비와 복도가 넓게 만들었다. 전체 분위기가 상가보다는 '몰'에 가깝다.

BIFC몰은 3층으로 현재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50여 점포가 입점해 있다. 서울에서 온 엘리트 금융인들이 주 고객층이다 보니 분위기가 '강남스타일'이다. 특히 1층에 카페들이 포진해 점심 때면 야외 테이블에서 담소를 나누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마치 유럽의 카페거리를 닮았다.

'좋으면 비쌀거야', BIFC몰의 대표적인 오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가격은 '대학가' 수준이다. 카페 대부분이 대용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다. 모닝세트(커피와 샌드위치)도 3,000원대를 넘지 않는다. 3층 놀부부대찌개는 금요일 테이크아웃 옛맛부대찌개를 4,200원의 파격가에 제시하고 있다. 프리미엄 안마의자에서 30분간 쉬고 음료를 마시는 힐링존의 이용료는 5,000원, 같은 서비스를 밖에서 받으려면 1만원 남짓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나아가 4개 점포가 공동쿠폰을 발행해 할인 스탬프를 찍어주고 있다. 이러고도 남는 게 있을까 걱정되지만 고객 입장에선 반갑다.

음식점의 경우 프랜차이즈가 주를 이루지만 기러기 직장인을 겨냥한 '집밥 스타일'의 한식당도 눈에 띈다. 2층 '금수저'는 압력밥솥 10개를 구비해 가게문을 열기 30분 전에 밥을 앉혀 '갓 지은 밥'을 제공한다. '금빛' 수저를 사용하고 있어 가게 이름을 지었는데 바닥도 금빛 칠갑이다. 8,000원 삼겹살 구이정식과 고등어 구이정식이 가장 많이 팔린다.

카레 전문점 3층 '봄베이브로이'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유일하게 '국제'적인 곳이다. 직원 전원이 인도 출신이다. 현지 풍미는 살리되 자극적인 맛을 줄여 우리 입맛에도 맞다. 샐러드와 버터치킨, 달프라이, 밥과 난빵이 나오는 1만원대 초반 런치메뉴가 인기다. 버터치킨라이스, 카레라이스, 스파게티는 8,000원. 전주비빔밥과 함흥냉면을 파는 개정과 교동짬뽕도 점심 때는 줄을 설 각오를 해야 한다.

식당, 카페 사이에서 틈새시장으로 자리를 잡은 2층 '사로옴므'는 남성 정장 맞춤점. 주 고객층은 BIFC 입주기관의 사내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맞춤 정장의 가격대는 39만원부터 240만원까지. 척 봐도 디자이너 느낌이 나는 주인 겸 실장인 김정렬씨는 "소득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 위한 공간"임을 강조했다.

최근 문을 연 초밥집 우미스시는 '회케이크'로 손님을 유혹한다. 단체나 생일 손님들에게 광어, 연어, 참치로 케이크 모양으로 회를 떠준다. 횟값만 2~3만원 족히 되지만 사전 예약을 하면 공짜다.

몰은 BIFC와 함께 준공되었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공실률이 제법 있다. 현재 BIFC몰에는 이·미용실, 내과, 세탁소, 약국 등이 없어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BIFC몰 입주자운영위원회 박미령 회장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혼자 사는 직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업종인데 아직 입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3번 출구로 나오면 BIFC몰과 이어진다. 지하1층 주차장은 할인권 없이도 최초 1시간까지 무료다.

교동짬뽕.

인도요리전문점 '봄베이브로이'의 요리사들이 점심특선(1만900원)을 선보이고 있다.

우미스시의 회케이크.

BIFC몰 입점 가게들

층수	상 호 명	특 징
1층	칼디커피	
	달풍	대용량 아메리카노1500원
	커피식스	모닝세트(커피+어니언3개)3000원
	미니크로아 프레	대용량 커피+크로아상3개3800원
	cafe imt	모닝세트(커피+샌드위치)3500원
	드롭탑	아메리카노1500원
	스타벅스	
	더벤티	아메리카노1500원
	엄마손	한식당
	GS25	편의점
	CU	편의점
	옷이 예쁘다	여성복
	우니끄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전문점
	KB국민은행	
	LG유플러스	통신사
2층	BrownCity카페	
	프레제 베이커리	
	CF Coffer	커피전문점
	요거프레소	
	슈퍼커피	
	Caf FEBA	융드립커피브런치
	금수저	삼겹구이 정식8000원
	통낙지	낙지볶음8000원
	스시153	지라시스시세트1만5000원(점심특선)
	야끼떼리아	철판요리전문점
	돼지김치찌개	분식점
	키친 휴	규동, 챠슈, 라멘, 장어덮밥
	모닝글로리	문구점
	디자인세진	브로슈어, 명함등디자인 인쇄
	사로옴므	맞춤정장 양복점
	디샤쥬얼리	귀금속
	하나투어	여행사
	앙팡부동산	
	동양위너스	사무실
	힐링존	프리미엄안마의자(30분)+힐링차 5000원
3층	PHI카페	파니니샌드위치생과일전문점
	놀부부대찌개	한식당
	전주남문토종순대국	40년전통전주남문순대국
	육대장	옛날전통육개장, 보쌈
	반가반가집밥&미역국	조개미역국정식7000원
	채미정	나주한우곰탕전문점
	맷돌순두부	마이산콩으로매일순두부제작
	개정	전주비빔밥함흥냉면전문점
	우미스시	참치회해산물전문점, 회케이크증정
	미스터스시	런치스페샬1만원(초밥8개+우동)
	미도방	돈까스요리전문점
	교동짬뽕	교동짬뽕 6500원
	봄베이브로이	인도카레전문점
	서울리더스치과	치과병원
	시티스톤	사무실